

## 뜨거운 질주...KIA 있어 시원합니다



타이어뱅크 KBO리그 KIA와 NC의 전반기 마지막 경기 열린 13일. 광주-KIA 챔피언스필드를 찾은 관중들이 함성을 지르며 KIA 승리를 염원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

### 투·타 조화...5강 후보서 독보적 1위로 전반기 마쳐 무시무시한 방망이 신기록 행진...관중 폭발적 증가

어느 한 장면을 꼽을 수 없는 강렬했던 '호랑이 군단'의 2017시즌 전반기. KIA 타이거즈가 있어 광주는 흥겹다. 13일 일정을 끝으로 프로야구가 짧은 '울스타 브레이크'에 돌입했다. 전반기 마지막 시리즈에서 2위 NC 다이노스와 격차를 벌린 KIA는 독보적인 1위로 잠시 숨을 고른다. <관련기사 3·20면> 5강 후보로 시작했던 KIA는 4월 12일 두산 원정에서 임기영의 첫 선발승과 함께 처음 kt와 나란히 1위에 오르며 '가을 잔치'를 향한 시동을 걸었다. 그리고 4월 14일 넥센과의 홈경기에서 팻딘이 완투 승으로 3-2승을 이끌면서 단독 1위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하지만 이 순간까지만 해도 이처럼 뜨거운 KIA의 질주를 예상하는 이는 없었다. '샷발' 임기영의 완봉승, 이범호의 끝내기 안타, 최원준의 끝내기 만루포, 최형

우의 동점 홈런에 이은 역전 홈런 등이 터져 나오면서 KIA는 단 한 번도 1위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은 채 지난 8일 kt 원정 20-8 승리로 일찌감치 전반기 1위를 확정했다. 반면이 있던 1위 확정이었기에 팬들은 열광했다. 지난 6월 25일 KIA 팬들은 덕아웃에서 허탈하게 고개를 숙인 김기태 감독과 김윤동의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보아 했다. 이날 NC 나성범에 역전 만루 홈런을 허용하면서 KIA는 싸늘이 3연패를 당했다. 3연패로 1위 독주는 끝나고 NC가 공동 1위로 KIA를 압박했다. 하지만 위기에 더 강해진 KIA였다. 이날 경기가 끝난 뒤 '캡틴' 김주찬이 선수단 앞에 섰다. 김주찬은 "우리는 아직 1위 팀이다. 순위에 연연하지 말고 즐기면서 우리 야구를 하자"고 입을 열었다. 전 캡틴 이범호

도 일본에서의 경험을 풀어냈고, 핵터도 선수들을 다독이며 파이팅을 외쳤다. 그리고 쓴 3연패를 뒤로하고 KIA의 유례 없는 신기록 행진이 시작됐다. 6월 27일 삼성 라이온즈와의 홈경기에서 11-4로 연패를 끊으면서, KIA의 두 자릿수 득점 행진이 시작됐다. KBO리그 역대 신기록인 4경기를 뛰어넘은 두 자릿수 득점 행진은 메이저리그(6경기)를 넘어 8경기까지 계속됐다. 1이닝 12득점이라는 무시무시한 기록도 두 번이나 작성했다. 1위 확정에 만족하지 않은 KIA였다. 2위 NC와 안방에서 전반기 마지막 3연전을 치른 KIA는 앞선 마산 원정 싸늘이 3연패의 아픔을 말끔하게 씻어냈다. KIA는 12일 연장 10회 타진 최형우의 끝내기 홈런으로 NC 마무리 임창민에게 시즌 첫 패를 안겨주며 설욕전을 펼쳤다. 폭염 경보가 내려졌던 이날 관중석에는 1만 3916명이 찾아 시원한 끝내기 홈런으로 더위를 잊었다. 12일까지 41경기를 치르는 동안 챔피언스필드를 찾은 이는 57만8987명. 평균 관중 1만4122명으

로 지난해 1만743명보다 31%가 증가했다. KIA가 올 시즌 목표 관중으로 내세운 78만1200명을 넘어 사상 첫 100만 관중까지 내다볼 수 있는 수치다. 막강 중심타선의 힘으로 V10을 이뤘던 2009년부터 더 폭발적인 타선은 '타이거즈 왕조'의 향수를 그리워하던 올드팬들의 발걸음까지 사로잡고 있다. 12일 고항팀에서 첫 끝내기승을 펼친 최형우는 "타선 이야기를 하자면 날을 세도 부족할 것이다"고 웃었다. 6시 30분을 기다리면서 환호의 밤을 보냈던 광주 시민들에게는 어떤 감탄사라도 부족할 KIA의 2017시즌 전반기였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팀 605-1115

## 美, 한·미FTA 개정 협상 요구

### "내달 특별공동위원회 열자"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개시하자고 공식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관련기사 2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12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국 무역의 장벽을 제거하고 협정의 개정 필요성을 고려하고자 한미 FTA와 관련한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한다고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USTR은 "특별공동위는 한미 FTA의 개정을 고려할 수 있거나 약정의 수정과 조항의 해석 등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한미 FTA가 발효된 이후 우리의 대(對)한국 상품수지 적자는 132억 달러에서 276억 달러로 배가

됐고, 미국의 상품 수출은 실제로 줄었다"면서 "이는 전임 정부가 이 협정을 인준하도록 요구하면서 미국민들에게 설명했던 것과 상당히 다르다"고 주장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또 주영환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특별공동위는 중요한 무역 불균형 문제를 다루고 미국의 대한 수출의 시장 접근성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서한에서 다음 달 워싱턴 DC에서 한미 양국 특별공동위를 개최하자고 요구했다. 현재 한미 FTA 협정문에는 한쪽이 공동위원회 특별 회담 개최를 요구하면,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응해야 한다. 다만 우리 정부는 통상교섭본부장이 공식적인 점을 들어 회담을 연기해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연합뉴스

## 송영무 임명...조대엽 사퇴

### 文대통령 정국 정상화 조치

문재인 정부의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조대엽 고려대 노동대학원 원장이 13일 자진사퇴한 가운데 문대통령이 송영무 내정자를 국방부장관으로 임명했다. 청와대가 조 후보자를 포기하고 송 내정자를 임명하는 카드를 쓴 것으로, 국회 정상화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들은 그동안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와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의 사퇴와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국회 일정을 보이콧했

다. 반면 국민의당은 이날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감성 발언에 대해 문 대통령이 임종석 비서실장을 통해 사과를 함에 따라 국회 일정에 복귀했다. 조 후보자는 13일 입장 표명을 통해 "본인의 임명 여부가 정국 타개의 결실물이 된다면 기꺼이 장관 후보 사퇴의 길을 택하겠다"며 "이 선택이 부디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조 후보자의 사퇴와 국민의당 국회 복귀로 조만간 국회 정상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김선정 광주비엔날레 신임 대표이사 선정

광주비엔날레 신임 대표이사에 김선정(52·사진) 아트선재센터 관장이 선임됐다. <관련기사 16면> (재)광주비엔날레는 13일 오전 제155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김선정 아트선재센터 관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화여대 서양화과와 미국 크랜북 서양학과 대학원을 졸업한 김씨는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이론과 교수, 제51회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커미셔너를 역임하는 등 해박한 미술 이론과 현장 실무 능력을 갖췄다. 또 2012광주비엔날레 공동 예술감독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정보원

예술감독 등 광주 문화예술계에도 인연이 깊다. 재단 이사회 측은 김 대표이사 선임에 대해 국내외 미술계의 폭넓은 네트워크와 함께 미술 분야 전문성과 경영 능력을 지니고 있는 광주비엔날레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발전을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김 신임대표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당분간 현재 공식인 광주비엔날레 이사장도 대행한다. /김미기기자 mekim@

## 신동엽, 라미란은 NK뷰킷으로 체크합니다

우리나이엔 면역력이 중요하니까

숫자로 확인하는 NK세포 활성도

문의: 080-340-2222 www.nkvue.com